

# 47년만의 가장 따뜻한 1월...2월도 따뜻

광주·전남 1월 평균기온 4.6도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아  
적설량 '0' ...눈없는 겨울도 처음  
내일까지 반짝추위 후 온화한 날씨

올 겨울 한파가 실종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광주·전남 평균 기온은 4.6도로, 1973년 전국적인 기상 관측 이래 47년 만에 가장 따뜻했다. 6일까지 이어질 반짝 추위가 지나면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이 이어질 전망이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월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3.1도 높은 4.6도로 집계됐다.

이 같은 '온화한' 날씨는 지난 1973년 이후 47년 만에 가장 따뜻했다는 게 기상청 분석이다.

같은 기간 평균 최저기온도 1.1도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고 평년(영하 2.4도)보다 무려 3.5도나 높았다.

광주의 경우 지난달 7일, 최고기온 17.7도를 기록했다. 이날 기온은 지난 1950년 1월 17일 18.8도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기온으로 집계됐다.

'겨울 추위' 실종과 관련 기상청은 약한 시베리아 고기압, 잦은 남풍 기류 등을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

따뜻한 날씨 기류가 시베리아 지역에서 국내로 유입되면서 고온현상(평년보다 3도 높음)이 나타나다가 하면,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발달을 막는 역할을 하

고 있다는 것이다.

예년에 비해 강한 극 소용돌이(겨울철 북극지역에 중심을 두고 발달한 저기압 덩어리)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제트기류가 북상하면서 북극의 찬공기를 가두는 역할을 하면서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도 내외로 높게 형성, 남쪽의 따뜻한 고기압 세력을 유지하게 되면서 따뜻했다는 게 기상청 설명이다.

눈이 오지 않은 것도 기상 관측 이래 처음이었다.

광주·전남 지역은 올해 적설량 0을 기록했다. 이전에는 지난 1974년 1cm 가 가장 적었다. 반면 저기압 여파로 지난달 비는 잦았다. 지난달 광주·전남의 평균 강수량은 82.7mm로, 1989년(112.2mm)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기상청은 '눈이 오지 않는 1월'과 관련, "평년 기온보다 높은 날씨가 계속되고 시베리아 고기압이 약해 서해상의 해기 차(해수면과 대기의 온도 차)로 빚어지는 눈 구름대가 많이 생성되지 못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따뜻한 날씨는 이번 달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광주·전남 3개월 기상전망'(2019년12월~2020년2월)을 통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달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5일 눈이 조금 내리고 6일까지는 반짝 추위가 오는 등 가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변화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일회용품 Zero운동' 실천협약 광주 동구청은 4일 오후 청사내 커피전문점과 개인컵 이용 음료 할인 협약을 가졌다. 동구청 직원들이 개인텀블러 사용, 머그컵 활용 등 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위한 '일회용품 Zero운동' 실천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호날두 '노쇼' 소송값은 관중 1인당 37만1000원

법원, 주최사에 배상 판결

지난해 프로축구 친선전 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경기 주최사가 아닌 관중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디페스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디페스티가 이씨 등 관중 2명에게 티켓값과 위자료 등 각각 37만1000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1인당 청구한 티켓값 7만원과 결제 수수료 1000원은 모두 손해배상금으로 봤지만, 위자료는 청구금액 100만원이 아닌 30만원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는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며 "원고를 포함한 많은 관중은 단순히 유벤투스 축구팀의 친선경기가 아니라 호날두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호날두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출전하지 않아 수많은 관중을 실망하게 했고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관중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커서 그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중대하고 광범위하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크다"고 부연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연합뉴스

## 목포·광양시

### '서민의 발' 묶이나

시내버스 노조 임협 결렬

오늘부터 파업 예고

임금교섭에 실패한 목포·광양시 시내버스 노조가 5일부터 파업을 예고해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5일부터 목포시의 태원여객·유진운수와 광양시의 광양교통 버스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 회사의 노사는 그동안 근로자 임금교섭을 벌였으나 임금인상률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해 말 등록기준으로 목포시의 태원여객은 77대·유진운수는 73대를, 광양시의 광양교통은 57대의 시내버스를 운행 중이다.

나주시의 나주교통(152대) 노조도 같은 날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임금교섭을 오는 9일까지 계속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들 지역 시내버스 운행은 해당 버스회사만 맡고 있어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양시의 경우 교섭을 계속하고 있어 파업예고가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며 "버스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교통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전남 도내에는 모두 50개 시·군·시·농어촌버스가 운행 중이다.

이중 7개 업체가 최근 임금교섭에 합의했고 9개 업체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중이며 2개 업체는 파업을 예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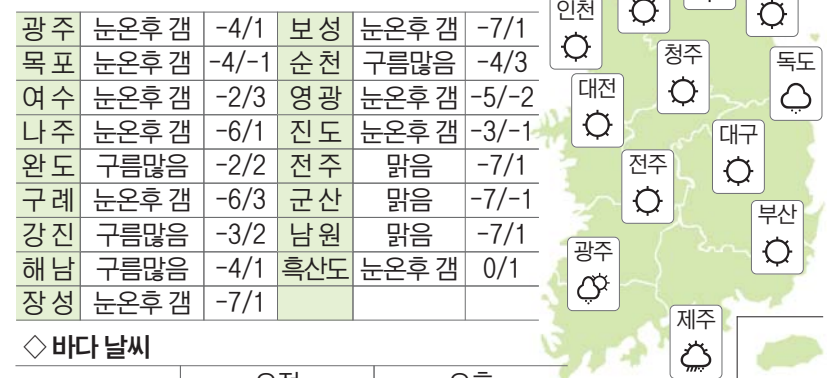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무 07:29 달뜨기 13:55  
해진 18:04 달짐 03:39

마스크 '꼭' 챙기세요

전지역 아침기온 영하로 떨어져 춥겠다.



◇바다 날씨

|      |        | 오전   |         | 오후   |         |
|------|--------|------|---------|------|---------|
|      |        | 풍향   | 파고 (m)  | 풍향   | 파고 (m)  |
| 서해남부 | 앞바다    | 북서~북 | 1.0~3.0 | 북서~북 | 1.0~2.5 |
|      | 면바다(북) | 북서~북 | 2.0~4.0 | 북서~북 | 1.5~3.0 |
|      | 면바다(남) | 북서~북 | 2.0~4.0 | 북서~북 | 1.5~3.0 |
| 남해서부 | 앞바다    | 북서~북 | 0.5~1.5 | 북서~북 | 0.5~1.5 |
|      | 면바다(서) | 북서~북 | 1.5~2.5 | 북서~북 | 1.5~2.5 |
|      | 면바다(동) | 북서~북 | 1.0~2.5 | 북서~북 | 1.0~2.5 |

◇물때

|    |    | 간조             | 만조             |
|----|----|----------------|----------------|
|    |    | 03:26<br>16:50 | 10:45<br>22:45 |
| 목포 | 여수 | 12:35<br>--:-- | 06:21<br>18:24 |

◇주간 날씨

| 6(목)   | 7(금)   | 8(토)  | 9(일)   | 10(월)  | 11(화)  | 12(수)  |
|--------|--------|-------|--------|--------|--------|--------|
| ☁ -6/5 | ☁ -3/7 | ☁ 0/8 | ☁ -1/9 | ☀ 2/12 | ☁ 4/12 | ☁ 8/13 |

◇생활지수

|      |       |
|------|-------|
| 감기   | 매우 높음 |
| 뇌졸중  | 매우 높음 |
| 미세먼지 | 중음    |

## 전남교육청 유·초·중등교사 2318명 인사

전남도교육청은 2020년 3월 1일자 유·초·중등 교사 정기인사를 4일 단행했다.

인사규모는 유치원 105명, 초등 833명, 중등 1380명 등 총 2318명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사 인사는 기초학력 정착 지도를 위한 문해력 및 수해력 전담교사(40명) 배치, 새학년 집중 준비 기간 운영을 위한 조기 인사 시행 등 학교 현장 지원 중심 인사에 중

점을 뒀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인사에 따라 전지역 대부분 학교에서 2월 셋째 주부터 운영되는 새학년 집중 준비 활동이 새로 발령받은 교사들의 참여 속에서 내실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남교육청의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 및 주요 보직 인사에 오는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 서구, 겨울철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광주시 서구가 취약계층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 다.

서구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보건팀은 올해 1월부터 취약계층을 방문하거나 전화·문자로 건강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겨울철에만 제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사라질 때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방문보건팀 소속 방문간호사는 관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겨울철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등을 교육한다. 또 대상자의 혈압과 혈당 등 기초건강을 확인한다.

방문보건팀은 관리대상자가 만성질환자일 경우 안부진화를 걸어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대설 및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면 안전문자를 발송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